

동절기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돕는다

전주시, 단전·체납가구·거리노숙인 등 위기 의심 시민 발굴·맞춤형 서비스 지원

전주시는 이번 동절기 기간 중 △단전, 단가스, 전기요금 체납가구 △한파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부족 가구 △거리 노숙인 등 위기 의심 시민을 중점 발굴,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당장 시는 지난 겨울부터 확대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활용해 단전과 단가스, 전기요금 체납 가구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요금할인 방식을 적용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

기로 했다.

이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난방 위기 가구에는 연탄은행과 전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 전주시 복지재단 등과 연계해 지원방안을 찾아 복지 사각을 없애 간다.

또 취약계층의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감면대상자 추가 발굴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 상담 시 감면지원 안내 △개별가구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이번 동절기 한파로 인한 노숙인 등 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숙인 거리상담(아웃리치)팀도 확대 운영한다. 거리상담팀은 3개팀으로 나눠 전지역과 남부시장,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주변 등 실외 지역뿐 아니라 공용화장실 등 실내 노숙인 취약지역을 주 2회 이상 순찰하고 상담활동을 이어간다.

구체적으로 거리 상담 시 우선적으로 시설 입소를 권유하고 상담 거부 시에는 먹거리와 핫팩,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119연계 병원후송 등 응급조치를 진행하는 등 거리노숙인의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동절기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공 및 민간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수목원·팔복예술공장·한벽문화관 '열린 관광지' 된다

2024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선정... 내년까지 총 19억원 투입 3개소 무장에 관광환경 조성

전주수목원과 팔복예술공장, 한벽문화관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 취약계층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로 변모한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4년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서 전주수목원과 팔복예술공장, 한벽문화관이 선정돼 국비 7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열린 관광지 조성은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

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는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과정에서 전북도, 전주시, 전주수목원 3개 기관이 협업하여 국비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해 사업 선정을 이뤄냈다.

시는 내년까지 국비 7억5000만원, 한국도로공사 4억원 등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전주수목원과 팔복예술공장, 한벽문화관 등 3개소에서 무장

에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열린관광지로 나아갈 예정인 전주수목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수목원으로 잠미원 등 24개의 주제원 안에 약 3,700여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태문화를 지향하는 전라북도 대표 관광명사로 널리 사랑을 받고 있다.

더불어 시는 전주수목원과 협업하여 자연 속 쉼터에서 치유와 힐링의 시간

을 갖고 예술놀이터에서 다양한 예술문화 체험이 가능하도록 팔복예술공장과 전주수목원을 연계한 관광 콘텐트 개발 및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벽문화관은 현대식 건물과 한옥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 및 전시가 진행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열린관광 사업으로 건물 내 진입로 및 문턱 단차 제거 등 무장애 동선을 정비하고 자동문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주민도움센터, 복지소의 계층 발굴 연계 위한 협약 체결

전주시주민도움센터(회장 김형석)와 주택관리공단 전주평화푸른마을관리사무소(소장 김대수)가 지역사회복지소의 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민도움센터는 현재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형석)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각종 민원업무 대행과 시장보기, 은행 업무, 간단한 일상생활 지원 등 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주민도움센터와 주택관리공단 전주평화푸른마을관리사무소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복지정보 및 자원을 공유하여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연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옥기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전주시의회·한옥마을 벤치마킹 나서

경남 창원특례시의회가 9일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와 한옥마을 등의 벤치마킹을 위해 전주를 찾았다.

이날 창원특례시의회 김이근 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최근 의원 연구실 조성 등 청사를 리모델링한 전주시의회를 둘러 보고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또 방문단 일행은 한옥마을과 덕진공원을 찾아 지역 특성을 갖춘 관광정책을 체험하고, 창원특례시에 접목할 수 있는 요소를 두루 살폈다.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상호 교류를 활성화 하고,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창원특례시의회 방문은 상호 효과적 의회 운영과 양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시·군과



경남 창원특례시의회가 9일 전주시의회와 한옥마을 등의 벤치마킹을 위해 전주를 찾았다. 의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 발전을 견인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

답했다.

/김옥기기자

전주 에너지전환 박람회 개최

11일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전환 선도 위해 추진

전주시가 급변하는 기후 위기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2023 전주 에너지전환 박람회'를 연다.

전주시와 전주시에너지센터 등은 오는 11일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서 2023 전주 에너지전환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2023 전주 에너지전환 박람회 포스터

“일상의 탄소제로를 위해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들”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박람회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돌아보고, 에너지전환의 정보와 기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는 시민들이 일상의 탄소중립을 체험할 수 있고, 누구나 에너지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50개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제로 에너지존 구성, 태양광 패널 재활용, 대화용기 사용 등 에너지관련 친환경 문화 체험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생산 △에너지를 배우고 놀이하는 프로그램 등 부스가 운영되며, 특히 한국에너지공단, 전라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 태양광관련 기업 등도 참여하여 건물 에너지 진단, 에너지 효율제품 제품 시연 등도 진행한다.

또한 가족 단위 시민들을 위해

△기후위기 합창 '우리의 노래로' △무전기 나무놀이 △에너지 인형극 '전기가 집을 나갔어요' 등 놀이와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준비된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에너지전환 활동의 선도적 도시”이며, “탄소중립 시민교육,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동절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전주시가 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앞두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 중 하나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집중 점검 및 오염도 감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을 위한 민간환경감시단과 드론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팔복동 공업지역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여부, △대기 자가측정·운영 일시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관심도

와 경각심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주·야간은 물론 휴일 취약시간대까지 빈틈없는 감시활동을 위해 팔복동 공업지역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

민간환경감시단은 △소각시설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 △악취 발생·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감시하고, 대기오염 심화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첨단장비 드론을 활용하여 일방적인 점검의 사각지대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이번 점검을 통해 더욱 쾌적한 대기질을 확보하여 청정 전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건강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영웅의 간장

햇살담은 그대에게

정정원 햇살담은

진심을 달이고 담다

DAESANG 대성주식회사